

美, '북한 정찰총국' 제재대상 공식 지정

(대남·해외공작업무 총괄)

오바마 '소니 해킹' 후속대응 행정명령 발동

정부 '적절한 조치' 환영 ... 북, 강력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고 명시하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 보내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김중훈·김광연·장성철·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장관에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들은 현재 미국과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효적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금반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의 행위 및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4일 소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국제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의 문답에서 이번 제재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의심이 커져서 자기 체면을 부지하고 우리의 국제적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대북제재는 우리에게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조치"라며 북한을 약화시키는 커녕 오히려 '선군의 보금'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인권단체 협력사업 단체 공모

광주시, 19일까지 ... 보조금 지원

광주시가 인권단체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인권단체 협력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한다.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인권 이슈를 발굴해 인권침해·차별 개선,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인권단체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 단계 간 사업 결과를 상호 공유해 인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주공동체 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적 인권단체 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인권 친화적 시민의식 함양과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등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인권단체 협력사업 신청서, 사업요약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록증 또는 허가서 등을 갖춰 5일부터 19일까지 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aime2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502-702)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차평동 1200)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로 하면 된다.

시는 선정 사업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주광역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증진 활동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시민의 삶 속에서 인권을 꽃피우는 인권공동체 광주 구현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에어아시아기 사고 악천후 가능성"

인도네시아 기상당국 밝혀, 시신 31구 수습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가다가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사고는 악천후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이 밝혔다.

4일 AP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3일 잠정 보고서를 통해 나뭇가지에 에어아시아 QZ8501의 가장 큰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BMKG는 14쪽으로 된 이 보고서에서 항공기의 추락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나뭇단 날씨가 사고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빈 엘드리안 BMKG 수석 연구원은 "기상 자료를 볼 때 항공기가 있었던 마지막 장소는 날씨가 매우 나빴고, 이것이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결빙 현상으로 엔진 등 기계 장치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BMKG는 자료 분석 결과 사고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수색 당국은 사고 2주일째에 접어든 4일 잠수부 90여 명을 동원해 시신 인양과 동체 확인, 블랙박스 수거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까지 시신 31구가 수습됐으며 이 중에는 항공기 의자에 안전벨트로 묶여 있는 시신도 포함돼 있었다.

국가수색구조청은 전남 수색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기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대형 물체 4개를 포착한 데 이어 이날도 대형 물체 하나를 추가로 탐지했다.

수색팀은 소니(수중음파탐지기)를 동원, 해저에서 이 물체를 발견했으며 이 중 가장 큰 것은 길이 18m, 폭 5.4m로 사고기 동체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사고기 동체 내부 의자에 희생자들이 안전벨트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색팀이 동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시신 인양 작업이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전남-함북 교류 '땅끝협력'

이낙연 지사 추진 관심

연초부터 남북 대화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이낙연 전남지사가 약칭 '땅끝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지사는 지난 2일 열린 사무실에서 "남북통일과 민족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반도 땅끝인 전남도와 함경북도 사이의 교류와 협력(약칭 '땅끝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연한 일치이지만 최근에 중앙(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와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관계국들도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개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문제(땅끝협력)와 관련해 최근 중국 연변을 방문하면서 기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올해 도정의 목표를 '더 작은 것을 생각하며, 동시에 더 큰 것을 생각하자'로 정했다"며 "외로운 이웃의 힘든 삶을 작은 것까지 챙기면서도 광복 70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민족적·국가적 사업에도 동참하기 위해 '땅끝협력'을 추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박차

이낙연 전남지사가(가운데)가 4일 오후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가고싶은 섬 가꾸기' 구상을 위해 보성군 벌교읍 장도를 방문, 임채영 보성부군수 안내로 해안 일주도로를 걷고 있다. <전남도 제공>

북, '당국간 대화' 이번주 답줄까

회담형식 고민 가능성

비난 중단 대화 분위기 띄우기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해 언제쯤 답을 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면서 대화의 형식을 북측에 사실상 일임해 둔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명의로 제안한 회담은 물론 지난해 10월 북측의 무응답으로 무산된 2차 고위급 접촉 제안도 아직 살아있다는 입장이다. 또 2013년 6월 회담 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된 고위 당국자회담도 북한이 원한다면 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만큼 대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에 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시간을 더 끌 가능성도 있다. 우선 12일째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답을 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담 형식과 관련해 북한이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단정하긴 힘들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GOChina 중국 전문 입학상담

www.gochina.co.kr | ☎ 233-9582 (중)구오팔리

입학상담문의 |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경축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반찬 덜어먹기 등 깨끗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여

「남도좋은식단」 4대 실천강령

-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 ④ 주방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회원 일동